

## 한국 양계산업의 희망을 이야기하자



강창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그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한국양계산업을 농업분야의 희망산업으로 가꾸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 4월 22일에 한국가금학회가 “국내·외 가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움 개최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동기였다. 이 심포지움 연사 중 한분이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를 폐허로 만든 6·25 전쟁이후 생산상자로 만든 케이지로 시작한 양계업이 반세기만에 최첨단시설을 갖춘 기업화된 양계산업으로 변했으니 놀라운 성장이요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 오늘의 세계경제 체제 아래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해외 농산물이 범람하는데 국내 농산물의 희망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상이라는 자조와 탄식도 있다. 하지만 한국양계

산업은 달라야 할 것이 아닌가? 이미 축산물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1997년 시장개방의 파고를 맞은 양계산업의 지난 8년과 현재를 돌아보고 미국, 유럽, 일본 양계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양계산업이 농업분야의 희망사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보고 싶고 또 그 희망을 실현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양계산물이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식품이면서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갖추어질 수 있을까? 가장 우선시되는 현안은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질병방역대책이다. 사실상 이 문제는 양계는 물론 모든 축종에 걸쳐 공통된 숙제이며 이에 대한 수많은 대책도 발표되어 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성실히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느 경영학자가 말했듯이 “이론이 없는 실천은 실패하기 쉽고, 실천이 없는 이론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으며 최후의 가치는 실천”에서 얻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양계산업의 질병방역을 수행하는데 보완되어야할 현안문제로 종계장 및 부화장방역관리에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백세미 생산 관리이다. 삼계용 병아리인 백세미를 생산하기 위해 산란실용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계·부화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백세미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에는 이미 육계시장의 20% 가량이나 되는 백세미 시장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이다. 우선 백세미 시장을 인정하되 현행 백세미 생산에 따른 방역관리의 허점은 백세미 생산에 산란종계 암탉을 사용함으로써 해결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백세미, 토종닭, 재래닭을 인정하는 문제는 “계육의 브랜드화”로 해외 양계산물에 대한 차별화를 통한 우리양계산업의 경쟁전략 면에서 서로 대승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유전·육종의 기법을 활용한 브랜드계육으로 등장한 우리나라의 백세미, 토종닭, 재래닭과 유사한 성공사례는 미국의 코니쉬계임헨, 볼란서의 라벨루즈(Label Rouge), 캐나다의 레드브로(Redbro) 및 대만의 토종닭 등이 있다. 양계인은 물론 학계 및 연구소에서 뜻과 힘을 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틈세계육시장을 만들어 내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대책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양계산물의 생산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우도 동일하다. 이 중에서도 위생적으로 안전한 양계산물의 생산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양계생산 및 가공 전 과정에 걸쳐 HACCP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traceability)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신뢰 없이는 산업의 발전은 커녕 있는 시장 지키기도 어렵다. 안전한 양계산물 없이는 신토불이(身土不二)라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화두는 양계산물의 소비증진 대책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계란 및 계육소비량은 계란의 경우 선진국의 60~70% 수준이고, 계육소비는 선진국의 삼분의 일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양계산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는 양 오해하고 있는지 2000년 이후 계란과 계육의 1인당 소비증가가 정체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은 소비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국민건강식으로서 양계산물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과학적이고 감성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국내에서 양계산물의 우수성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과학적인 연구는 물론 해외 연구 보고를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노력조차도 소홀하지 않았는가? 일본은 개인당 계란 소비가 우리나라보다 70%이상 높아도 계란 콜레스테롤과 심장병과는 무관함을 소비자에게 알려 진지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특히 오늘날의 감성시대에 적합한 홍보활동이 이루어 졌는지 반성해 볼일이다. 또한 양계산물의 유통문제로 양계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불평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소비증진을 위한 재정자원을 위한 부담은 누가 담당해야하는지? 많은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국내의 다른 축종에서도 시행단계에 있는 자조금제도가 양계산업에서는 그리도 어려운 일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 정도의 양계산업규모와 수준에서 양계산업계가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지금처럼 지식기반 사회, 산업의 지식화가 필수적인 때에 연구개발 없이 어떻게 산업의 성장발전을 이야기 하겠는가? 이날 발표된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타축종과 농산업을 정체된데 비하여 양계산업은 성장발전을 지속하는 희망산업임이 입증되었다. 선진국이 이룰할진대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이들 나라보다 더욱 밝은 미래를 지닌 희망적인 산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날 모인 가금분야의 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양계 및 가금산업을 희망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국 양계포럼”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계산업에 관련된 이슈들을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우리나라 양계산업도 타국처럼 희망산업임을 보여주는 모임이 되리라 기대하고 소망한다. 자 이제 비생산적인 논란 대신 한국양계산업의 희망을 이야기 하자. **양계**